분실·훼손·반출 '수난'…40여점 행방불명

문정왕후·현종 어보 귀환으로 본 조선왕실 어보

왕실 개인 도장…375점 만들어져
美, 2014·2015년 이어 2점 반환
'장렬왕후옥보'는 반환 소송 중
민간기관 소장 어보 반환 불가능

문정왕후 어보 / 현종 어보

미국으로 반출됐던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가 2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귀국과 함께 국내로 돌아오면서 어보(御寶)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묘 정전과 영녕전에 봉안돼 있던 '어보'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을 위해 제작된 의례용 도장으로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현재 조선왕실의 어보는 대부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단종금보'와 '정순왕후금보', 국립중앙박물관은 '고종옥보'와 '명성황후옥보' 등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과 대한제국이 만든 어보 375점 가운데 40여 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분실되고 훼손된 어보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상당수가 외국으로 유출됐다.

내달 열리는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문정왕후 어보는 명종 2년 문정왕후(1501～1565)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大王大妃)라는 존호(尊號·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릴 때 만들어졌다. 가로·세로 각 10.1㎝, 높이 7.2㎝이며, 거북 손잡이가 달린 금보(金寶)다. 현종 어보는 효종 2년 임금의 맏아들인 현종(1641～1674)이 왕세자로 책봉됐을 때 제작된 것으로 재질은 옥이며, 문정왕후 어보보다 약간 더 크다.

이번에 환수된 어보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4년간의 공조를 통해 제자리를 찾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4년 4월 고종 황제가 수강태황제로 받들어지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기념해 제작된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를 돌려줬고, 이듬해 4월에는 미국 시애틀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덕종 어보를 우리나라에 반환했다. 덕종 어보는 성종이 1471년 죽은 아버지인 덕종을 기리며 제작한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이 2010년 발간한 자료집 '조선왕실의 어보'에 따르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어보는 1408년 만들어진 '태조금보'부터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순종에게 바친 '순종황태자 금보'까지 제작 시기가 다양하다.

지난해에는 문화재 수집가 A씨가 행방불명의 어보로 알려진 '장렬왕후옥보'를 미국 경매에서 구매해 국립고궁박물관에 판매하려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렬

2014년 미국에서 반환된 '수강태황제보'.

왕후옥보는 숙종 2년(1676) 인조의 비인 장렬왕후에게 휘헌(徽獻)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어보다.

문화재청은 장렬왕후옥보가 정부 소유의 도난문화재인 데다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됐다는 점을 들어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어보가 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구입 당시 도난문화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며 어보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렬왕후옥보는 진품으로 확인됐다"며 "경매가 진행되기 전인 2015년에 이미 미국에 이 어보가 도난문화재임을 알렸으므로 경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고려대박물관이 민간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어보인 '원경왕후금인'과 '명성왕후옥보'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두 어보는 각각 1404년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 1676년 현종의 비인 명성왕후를 위해 제작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장렬왕후 어보도 같은 이유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체계가 달라 고려대박물관의 어보를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7월호

역사속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여성학자 박혜란에 듣는 여성문제와 자녀교육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올해는 어디로 떠날지, 사람 북적이지 않고 편히 쉬었다 올 수 있는 곳은 어디일지, 손품 발품팔아 여행지 고르기가 시작된다.

올 여름휴가는 '역사속으로' 떠나보는건 어떨까. 국정논란과 촛불정국, 대선과 새정부 출범까지 어느 때보다 역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7월호에서는 특집을 통해 독자들에게 힐링도 하고 역사도 배울 수 있는 역사여행을 권해본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여성학자인 박혜란 (사)여성·문화네트워크 대표를 만나본다. '한 번도 웃지 않은 날은 망한 날!'이라고 말하는 박 대표를 만나 여성문제와 자녀교육, 나이듦에 대해 들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홍쌍리 청매실농원 대표도 반가운 얼굴이다. 일흔을 훌쩍 넘기고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명인에게서 건강을 위한 약상을 배워본다.

7월에 떠나는 남도 미미락 여행지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다. 낙안읍성과 조례동 드라마촬영장, 철도문화마을, 낙안읍성, 순천만 등으로 '에코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남도는 항구다'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김 생산지로 명성 높은 해남 어란진항을 향해 출발하고, 과거와 미래, 예술과 놀이가 섞여 녹아든 '팔색조 도시' 홍콩으로 해외문화 탐방도 떠나본다.

문화 화제 'ACC 속으로'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년 6개월만에 임시 개방을 통해 첫 선을 보인 민주평화교류원 전시 콘텐츠 '열흘간의 나비떼'를 들여다보고, 지난 6월초 금남로 거리를 수놓았던 국제거리극축제 'ACC 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을 사진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예향'이 새롭게 선보이는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첫 번째 주인공은 순천역 인근 재래시장 골목에 자리한 '책방 심다(SIMDA BOOKS)'다. 이외에도 친정 KIA타이거즈에 돌아와 제2의 야구인생을 꽃피우고 있는 서동욱과 음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플레이드림 대표 최소형씨를 만나본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창극으로 만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시립창극단 '솔의 노래' 공연…6～7일 광주문예회관

'창극으로 만나는 광주학생독독립운동.'

광주시립창극단이 광주학생독립운동 88주년을 기념해 창극 '솔의 노래'를 무대에 올린다. 6～7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창극 '솔의 노래'는 1929년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광주일고(광주고보), 전남여고(광주여고보), 광주농고(광주농보)등에 재학하던 실존 학생 투사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판소리 여류명창 '솔'의 이야기를 더해 만든 작품이다.

전통 소리와 몸짓으로 재구성한 작품은 항일운동과 더불어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의 신분 해방, 근대화, 의리, 우정, 희생 등 다양한 이야기를 그려낸다.

주인공 솔은 나주지역 한 가문 노비의 딸로 판소리를 좋아하는 똑똑한 소녀다. 어린 시절, 솔은 동네에 찾아온 창극단의 공연을 보고 판소리에 빠져 소리를 배우게 된다. 솔은 비밀 학생독립운동조직 '소녀회'에 가입하고 조직원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1929년 나주역에서 벌어진 일본 학생의 조선 여학생 희롱사건을 계기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촉발되고 솔은 역사의 격랑

속으로 휩쓸리게 된다.

최용석씨 극작으로 프랑스 리옹 국립극장 2년 연속 레퍼토리로 선정작 '억척가'를 연출한 남인우 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음악은 황호준, 안무는 김유미씨가 참여했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학생 50% 할인)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2-526-036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나주 도래마을 옛집'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 선정

'잊혀져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나주 도래마을 옛집' 프로그램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추가 공모'에 추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추억을 사고파는 훈훈한 가게-동문 고서점'(전북 전주), '148 문화제조창'(경북 영주), '비단길의 염원-함창예고을 금상첨화 퍼레이드'(경북 상주) 등이다.

문체부는 올해 지난 3월 선정한 41개 사업에 이번에 추가로 선정한 사업까지 53개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총 4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공연 정보는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